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

김 태 익 김 원 중\* 1)

경남대학교

현재 휴대폰은 초등학교도 고학년의 경우 반에서 절반 정도가 갖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신 매체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하루 음성 통화 횟수는 5회 이하가 대부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횟수는 30회를 넘는 경우가 많고, 100회 이상인 청소년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은 수차례의 예비 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을 찾아냈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는 절충형, 둘째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지배형, 셋째는 상대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형이다. 대상은 중학생 530명이었으며, 방법은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휴대폰 중독 점수는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이 지배형인 집단과 양보형인 집단이 절충형인 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절충형과 양보형이 지배형에 비해 더 높았고, 우울은 지배형이 절충형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절충형과 양보형이 지배형에 비해 더 높았다.

주제어 : 의사소통 유형, 휴대폰 중독,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

\* 이 논문은 김태익의 박사학위논문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또한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계제지원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원중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449번지  
Tel: (055) 249-2315 / E-mail: wjkim@kyungnam.ac.kr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폰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심지어 수업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한다. 현재 휴대폰은 초등학교도 고학년의 경우 반에서 절반 정도가 갖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신 매체가 되었다(권상희, 2004). 청소년들의 하루 음성 통화 횟수는 5회 이하가 대부분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횟수는 30회를 넘는 경우가 많고, 100회 이상인 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종숙(2001)은 청소년들의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는 이유의 하나로 의사소통의 일방향성을 들면서, 문자 메시지의 그러한 특성은 면대면 대화나 음성 통화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이수영(2003)은 연구를 통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이용이 음성통화에 비해 이용자에게 휴식감과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문자메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과 같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언어이며, 대인간의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이다. 나은영(2001)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개인 대 개인의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종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 개인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성 및 이동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사용은 성인과 차별화되는데,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청소년들은 문자메시지를 사용한다. 즉, 거리와 공간의 장벽이 문자메시지의 사용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대인 간 의사소통 양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될 때 그 나름의 특징을 갖는다. 휴대폰 음성통화의 경우는 발신자와 수신자간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기존의 유선전화

와 별로 다르지 않으나, 문자메시지가 매개체가 될 때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타이핑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글자 수의 제약과 함께 속도의 제약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글자 수와 속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글자를 축약하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기도 하며, 음성통화의 언어의 고조와 같은 통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청각적인 정보를 시각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휴대폰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휴대폰의 채택이나 확산의 이유를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나은영, 2001; 김신동, 2001; 김현주, 2000)과 이용과 충족의 가정에 근거하여 휴대폰의 충족요인을 살펴보는 것(배진한, 2001; 이인희, 2001; Leung and Wei, 2000)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휴대전화 이용을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미디어의 속성과 동기 측면에서의 이용유형에 관한 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이수영, 2003; 박웅기, 2003; 박종민, 2003; 성동규, 조윤경 2002).

국내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연구는 휴대폰 중독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중독(addiction)이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술이나 마약, 담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인 의존으로 행동변화와 금단현상, 내성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약물이나 물질을 넘어서 과도한 특정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조절의 문제도 중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중독을 행동중독이라 이르는데(Marks, 1990), 행동중독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영상매체인 TV로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영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Suler(1996)에 의하면 인터넷과 유사하게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화 역시 중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전화의 한 종류인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도 중독적인 현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중독이라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며, 휴대폰의 사용이 단순한 통화수단을 넘어 인터넷, 문자전송, 카메라, MP3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인터넷을 능가하기에 이르렀고 휴대폰이 특성상 항상 휴대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더욱 휴대폰 중독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준범(2000)은 휴대폰은 언제나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심리적 대기상태에 빠지게 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일종의 소외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존적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위(status)를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정인(2000)은 휴대폰 사용자가 사회적 다수가 됨에 따라 휴대폰 비사용자는 소외감을 갖게 되며,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실질적인 수단이자, 그들이 항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휴대폰을 주제로 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문자메시지에 관한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리 많지 않다.

영국 청소년들의 문자메시지 이용 실태에 관한 Grinter과 Eldridge(2001)의 연구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친구와의 만나는 시간 정하기, 약속된 시간을 조절하기, 극장가기와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조정하기, 수다를 떨거나 잡담 나누기, 가족에게 알림 등이었으며, 청소년들이 문자메시지라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저렴하고, 쉽고, 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국 청소년들은 수신된 메시지를 해석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잘못 수신된 메시지들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숙(2001)은 청소년들의 문자메시지의 이용 형태를 문화적 소비 현상으로 보고, 문자서비스 소비의 의미를 '공간의 영상성', '사적인 공공(public)공간' 등의 개념을 동원하여 해석하였으며, 김유정(2002)은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태도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호도와 약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으나 기술적 경험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박준범(2000)은 청소년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사용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명동선(2003)의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문자 메시지보다는 음성 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의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한 최병목(2002)은 남자 청소년은 문자메시지를 약속을 조정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도구적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여 문장의 길이가 짧거나 주고받는 횟수가 적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정서적 교류를 하기 위한 표현적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문장이 길거나 주고받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밝혔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가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 못지않게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음성통화보다도 문자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름의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가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자메시지를 몇 가지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간 심리적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며,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 교류와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는 구성원간의 상호 교류과정이다(길애진, 1999). 의사소통 유형은 의사소통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예를 들자면 가족원들의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타협에서부터 보이지 않고 말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유형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은 대화 주제를 선택하는데 조심을 많이 하고 의견과 감정의 교류를 주저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이라고 하였다.

한편 Satir(1972)는 의사소통은 두 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하나는 표현되는 수준, 즉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메타 커뮤니케이션(meta communication)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치형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누었다.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은 기능적이며 원만한 유형으로서 책임감, 친근감, 능력, 창의성이 있고 정직하여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순기능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유롭고 타인을 수용하며 변화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다.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서로 간에 긴장이

높을 때 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으로서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초이성형), 혼란형(산만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Satir, 1972). 역기능적 의사소통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atir(1983)는 행동이나 적응에 있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 이중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가족원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시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갈등을 빚을 때의 의사소통 방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차이를 보인다. 즉, 화해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양보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 유형은 일반적으로 갈등관리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Rahim(1992)에 의하면,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을 Follet(1926/1940)은 지배, 타협, 통합, 회피와 억압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Blake와 Mouton(1964)은 강압, 철회, 진정, 절충, 문제해결 등 5개로 분류하였다. Rahim과 Bonoma(1979)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관심의 두 차원을 바탕으로 융합(integrating), 배려(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 절충(compromising)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협력)형 갈등관리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은 물론 자신의 입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환하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둘째, 배려(양보)형 갈등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높고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추어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자기희생의 요소가

강하며, 관대함, 자비,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복종이 나타난다.

셋째, 지배형 갈등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낮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은 갈등관리 방식으로서 얻느냐 잃느냐를 두고 상대방의 욕구나 기대는 무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거는 행태이다.

넷째, 회피형 갈등관리는 철회, 책임전가와 회피를 특징으로 하며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갈등관리방식이다. 이 방식은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쟁점을 미루거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저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섯째, 절충형 갈등관리는 상대방과 자신의 관심사를 중재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려는 방식이다. 갈등 당사자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쪽이 일부를 포기하면서 신속하게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절충형은 배려(양보)형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게 포기하지만, 지배형보다는 많이 포기하고, 회피형보다는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융합형에 비교하면 문제나 대안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아니다.

Hammock, Richardson, Pilkington과 Utley(1990)은 부모-자녀 관계나 친구관계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양식 중 융합형과 절충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배선영, 2000,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과 화해 상황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의사소통 유형은 주로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him과 Bonoma(1979)의 5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청소년 문자 메시지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채택하되, 그 중 '융합형'과 '회피형'을 제외한 3 가지 유형만을 사용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에게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는 기존의 언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은 청소년의 삶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중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 즉 휴대폰 중독 수준,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폰의 중독적 이용집단이 비중독적 이용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양심영(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윤재희(199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몰입자 집단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나, 송인덕(1999)의 연구에서는 '강박적 사용', '조절 불능' 그리고 '강박적 집착'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중독증 개념의 타당도 검증에서 단지 '강박적 사용' 요인에서만 몰입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휴대폰, 그 중에서도 문자 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이 서로 다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휴대폰 사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경남 M시 소재의 5개 중학교 학생 총 530명(남: 204명, 여: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 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87명(남: 180명, 여: 30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측정 도구 및 방법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 문자메시지 용 설문지 제작과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기록하게 하는 개방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학생을 한 명씩 상담실로 불러 설문지에 기록해야 할 내용과 응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후 문자메시지 기록란에 기록하고, 자기보고(self-report) 형 심리 척도에도 응답하게 하였다. 문자메시지 기록란에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중 친구와 갈등 빚을 때와 화해할 때 주고받았던 문장을 그대로 쓰도록 하였다. 두 가지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가 연속적으로 주고받은 문장 각 20개(자신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10 문장, 받은 문장 10 문장)씩, 총 40개의 문장을 기록하게 하였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메시지의 내용은 친구간의 대화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보낸 문자 메시지만 받은 메시지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은 평정자들이 대화의 상황을 알아야 문자메시지 문장의 의사소통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이유는 문자 메시지의 경우 기록하는 내용과 방법을 피험자들이 올바르게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기록해야 할 양도 많아 집단적으로 할 경우 무성의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면접이란 피험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기록지와 자기 보고 형 심리척도에 제대로 응답하게 하는 과정이었을 뿐, 피험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면담은 아니었다. 면접 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자기 보고형 척도

휴대폰 중독 척도

휴대폰 중독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를 참고로 하여 장혜진(2002)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용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과 금단증상,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적 성향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 검사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강박적 행동과 금단증상 .87, 사용통제의 어려움 .87, 의존적 성향 .75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이 제작하고 박미영(199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우울성 척도

우울성 측정 척도는 Beck의 BDI를 송인덕(1999)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0점에서 3점까지를 부여하며, 문항의 내용은 정서적 우울, 행동적 우울의 2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높았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정서적 우울 .85, 행동적 우울 .77로 나타났다.

###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 척도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주관적 안녕 지표(Index of Well-Being)'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 지표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에 해당하는 9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 크기를 평정한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들(9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복한 - 불행한)을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에 배치한 후, 1점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 개인의

표 1. 각 유형의 문자메시지 사례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내용	◦ 나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어. 내 돈 갚아 주면 좋겠다.	◦ 야, 오늘까지 내 돈 갚아.	◦ 언제 갚아 줄 건데?
	◦ 4시까지 나올 수 있지. 꼭 나와야 한다.	◦ 너 오늘 4시까지 나와라. 안 나오면 죽는다.	◦ 4시에 나올 수 있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	◦ 너 어디야. 왜 안 와. 빨리 못 와.	◦ 너, 오늘 오기로 한 것 맞니? 우리 4시에 약속한 것 아니니?
	◦ 기다려. 금방 갈게. 차가 많이 밀리네.	◦ 금방 간다. 꼼짝 말고 기다려라.	◦ 나 지금 가고 있거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가도 된다.
	◦ 내가 너처럼 네 뒷담화를 하면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 니가 내 뒷담화했다는 소리 들었다. 죽고 싶나?	◦ 너 혹시 누구한테 내 이야기하지 않았니?
	◦ 나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좋지 않다. 말할 기운도 없다.	◦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건드리지 마라.	◦ 나 힘없다.
	◦ 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도 사과해야지.	◦ 니가 먼저 사과해라. 나는 먼저 하기 싫다.	◦ 뭐, 그냥 넘어가자.

안녕감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예비 및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 분류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 분류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그들이 친구와 주고 받은 가장 최근의 문자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일상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음성통화에서 대화하듯이 특정 대상과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모티콘의 사용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ㅋㅋㅋㅠㅠㅠ 등 문자판을 변경하지 않고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수문자의 사용은 적었다.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유희(장난스러운 대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이었으며 간혹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1차 예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는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논문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 분류 방법으로 유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다른 방식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유형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 상황과 화해 상황에서의 문자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2차 예비조사를 통해 갈등을 빚을 때와 화해할 때의 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견을 관철하려 하는 유형,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하며 압박하는 유형,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압력에 눌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ahim과 Bonoma(1979)의 5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청소년 문자 메시지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채택하되, 그 중 사례가 거의 없는 '융합형'과 '회피형'은 제외하고,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의 3 가지 유형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와 평정가들은 논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논리적 설득을 시도하는 유형을 '절충형',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유형을 '지배형', 대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형을 '양보형'으로 정의하였다.

각 유형의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사례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8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 자주 나타나는 욕설의 경우, 먼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이 청소년들의 문화로 볼 때 일반적인 언어사용 양식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배형 유형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 자료 분석

피험자의 문자 메시지 유형 평정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 외에 2 명의 전문가(상담심리 석사 1명, 국어교육 석사 1명)가 참여하였다. 평정자들은 각자 피험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모든 문장을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으로 판별한 후 각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유형을 해당 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판정하였다. 3명의 평정자는 평정 전에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예시문항을 통하여 평정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평정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있는 대상은 결과 처리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수는 전체 487명 중 21명이었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본 연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치하는 대상자 수/전체 대상자 수 X 100'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95.6(%)이었다.

최종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의사소통 유형 간 휴대폰 중독과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일일 음성통화의 횟수는 3~4회가 36.3%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횟수는 11~30회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문자메시지를 받는 횟수도 11~30회가 27.5%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은 음성통화보다도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대상 학생의 수는 3명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는 대화하듯 11회 이상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응답 형태는 즉시 문자로 응답한다가 56.1%로 가장 많았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

예비조사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빚을 때,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의 문자 유



형을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와 갈등을 빚을 때와 화해할 때, 보낸 문자메시지 10개 문장과 받은 문자메시지 10개 문장을 각각 기록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보낸 메시지만 사용하였는데, 갈등을 빚을 때 보낸 문자 메시지 10개 문장과 화해할 때 보낸 문자 메시지 10개 문장을 합한 총 20개 문장을 한 문장 씩 각각 유형을 판별한 후, 각 문장마다 그것이 속하는 유형 점수 1 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세 가지 의사소통 유형의 점수를 모두 부여받으며, 그 합은 20점이 된다. 각 피험자는 어떤 한 가지 유형 점수가 7점이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되나 이 경우 그 특징이 확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부터 13점 이상인 경우까지 각 의사소통 유형의 피험자 수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

구 분	유형별 최고 점수			
	10점 이상	11점 이상	12점 이상	13점 이상
절충형	81(31.4)	62(35.0)	40(31.0)	25(25.5)
지배형	115(44.6)	80(45.2)	62(48.1)	51(52.0)
양보형	62(24.0)	35(19.8)	27(20.9)	22(22.4)
계	258 (100.0)	177 (100.0)	129 (100.0)	98 (100.0)

표 3.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휴대폰 중독 비교

변인	의사소통 유형	n	M	SD	Scheffé Group	F	p
강박금단 증상	절충형	40	1.57	0.49	a	4.849	0.009
	지배형	62	2.08	0.94	b		
	양보형	27	2.03	1.01	b		
	전체	129	1.91	0.87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사용통제의 어려움	절충형	40	1.45	0.47	a	4.350	0.015
	지배형	62	1.94	0.95	b		
	양보형	27	1.84	0.98	b		
	전체	129	1.77	0.86			
의존성 심화	절충형	40	1.68	0.80	a	2.889	0.059
	지배형	62	2.20	1.11	b		
	양보형	27	2.04	1.28	ab		
	전체	129	2.01	1.08			
휴대폰 중독 (계)	절충형	40	1.54	0.44	a	5.007	0.008
	지배형	62	2.05	0.90	b		
	양보형	27	1.97	0.98	b		
	전체	129	1.88	0.83			

분류결과를 보면,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다른 또 하나의 10점으로 동점이고 나머지 하나의 점수가 0점일 경우 삭제함)는 전체 487명의 53.0%인 258명이 선택되었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45.2%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5.0%, 양보형 19.8%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가 12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26.5%인 129명이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48.1%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1.0%, 양보형 20.9%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20.0%인 98명이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52.0%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25.5%, 양보형 22.4%로 나타났다.

유형의 분류기준의 선택 시 판별력과 자료의 소실성을 고려하였는데, 판별력의 측면에서는 분류기준이 10점인 경우는 두 유형이 동점인 경우도 발생이 되어 판별력이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분류기준이 11점인 경우도 두 유형의 점수 차이가 적은 경우가 발생하여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분류기준이 13점인 경우는 전체에서 20%만이 선택되어 자료의 상당수가 소실되어 비효율적이

으며, 지배형이 44.6%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1.4%, 양보형 24.0%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가 11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36.3%인 177명이

며, 절충형과 양보형의 빈도가 너무 적어 선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류기준을 12점으로 결정하였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간 심리적 특성

### 휴대폰 중독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휴대폰 중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휴대폰 중독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_{2,126} = 5.007$ ,  $p = 0.00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1.54$ )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 $M=2.05$ )과 양

보형(M=1.97)인 집단의 휴대폰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강박금단 증상,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성 심화 증상 모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강박금단 증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4.849$ ,  $p=0.00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1.57)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2.08)과 양보형(M=2.03)인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사용통제의 어려움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4.350$ ,  $p=0.0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1.45)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1.94)과 양보형(M=1.84)인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의존성 심화 증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2.889$ ,  $p=0.059$ 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1.68)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2.20)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갈등을 빚을 때,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절충형의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압박지르는 지배형의 학생과 민감한 갈등상황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양보형의 학생에 비해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적음을 볼 수 있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자아존중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표 4.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의사소통 유형	n	M	SD	Scheffé Group	F	p
절충형	40	5.60	1.12	b	7.567	0.001
지배형	62	4.49	1.64	a		
양보형	27	5.15	1.31	b		
전체	129	4.97	1.50			

표 5.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우울 비교

변인	의사소통 유형	n	M	SD	Scheffé Group	F	p
정서적 우울	절충형	40	0.24	0.30	a	7.778	0.001
	지배형	62	0.63	0.60	b		
	양보형	27	0.37	0.46	a		
	전체	129	0.45	0.52			
행동적 우울	절충형	40	0.35	0.35		2.553	0.082
	지배형	62	0.53	0.40			
	양보형	27	0.45	0.40			
	전체	129	0.46	0.39			
우울 (계)	절충형	40	0.30	0.31	a	5.319	0.006
	지배형	62	0.57	0.46	b		
	양보형	27	0.42	0.40	ab		
	전체	129	0.46	0.42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 = 7.778$ ,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 $M=5.60$ )과 양보형( $M=5.15$ )인 집단이 지배형 ( $M=4.49$ )인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을 빚을 때의 문자메시지도 자신의 주장

만을 강요하는 지배형의 학생들보다 상대방에 대해 배려를 하는 절충형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양보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우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우울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5.319$ ,  $p=0.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0.30$ )에 비해 지배형( $M=0.57$ )인 집단의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우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7.778$ ,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0.24$ )과 양보형( $M=0.37$ )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 $M=0.63$ )인 집단의 정서적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우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2.553$ ,  $p=0.082$ 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우울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 우울이 차이를 보인 것은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사람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하여 준다.

**심리적 안녕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9.868$ ,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5.43$ )과 양보형( $M=5.41$ )이 지배형( $M=4.22$ )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비교

변인	의사소통 유형	n	M	SD	Scheffé Group	F	p
보편적 안녕감	절충형	40	5.42	1.25	b	10.430	0.000
	지배형	62	4.21	1.75	a		
	양보형	27	5.47	1.34	b		
	전체	129	4.85	1.63			
삶의 만족도	절충형	40	5.48	1.62	b	5.152	0.007
	지배형	62	4.27	2.00	a		
	양보형	27	4.85	1.81	ab		
	전체	129	4.77	1.91			
심리적 안녕감 (계)	절충형	40	5.43	1.25	b	9.868	0.000
	지배형	62	4.22	1.75	a		
	양보형	27	5.41	1.36	b		
	전체	129	4.84	1.64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보편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보편적 안녕감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10.430$ ,  $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5.42$ )과 양보형( $M=5.47$ )인 집단이 지배형( $M=4.21$ )인 집단에 비해 보편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도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_{2,126}=5.152$ ,  $p=0.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5.48$ )인 집단이 지배형( $M=4.27$ )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사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남 M시의 S중학교를 비롯한 5개 중학교의 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을 통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자기보고형 심리 검사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휴

대폰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성인의 경우와 달랐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통제 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휴대폰을 통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에 담긴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자신들의 내적 세계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순식간에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신을 보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순간순간 나타내었다. 즉, 문자메시지가 농인의 수화와 같이 학생들에게 1차 언어처럼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

첫째,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절충형',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강요하는 '지배형',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는 '양보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간 휴대폰 중독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지배형( $M=2.05$ )과 양보형( $M=1.97$ )인 집단이 절충형( $M=1.54$ )에 비해 휴대폰 중독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충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판정된 집단이 휴대폰의 중독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 모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절충형( $M=5.60$ )과 양보형( $M=5.15$ )이 지배형( $M=4.49$ )에 비해 더 높았고, 우울은 지배형( $M=0.57$ )

이 절충형(M=0.30)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절충형(M=5.43)과 양보형(M=5.41)이 지배형(M=4.22)에 비해 더 높았다.

즉,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지배적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우울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되는 긍정적인 정서가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한 Satir(1983)의 연구, 우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적의와 거부의 반응을 되돌려 받는다고 보고한 Strack과 Coyne(1983)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우울 성향을 가진 학생이 친구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에서 거부와 적의적인 답신을 많이 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 사이의 의사소통이 강압적, 지배적으로 이루어져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돌림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진영(2008)은 의사소통이 미성숙할수록 따돌림의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하였으며, 설호동(2006)은 의사소통 훈련이 여중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의사소통 훈련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구어로 하는 의사소통과 달리 면대면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소극적인 학생이나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있는 학생도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훈련은 대면 관계에서의 언어적 의사소통훈련보다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수용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소극적인 학생이나 따돌림을 하거나 당하는 학생들을 조력할 수 있는 새롭고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따돌림을 당해 친구가 없는 학생에게는 비슷한 처지의 학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펜팔과 같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는 문자메시지 상담소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지도는 첫째,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개선하여 외톨이 학생이나 집단따돌림의 발생을 줄이고, 둘째, 청소년들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줄이고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등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과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Strack과 Coyne(1983)의 연구 결과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효율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상대방의 그런 반응은 다시 자신의 심리를 우울하게 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순환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정신 건강과 의사소통유형의 두 요인을 동시에 교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학교에서의 집단 교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므로 우선은 그들에게 의사소통 방법을 예방적, 교정적 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악순환의 한 쪽 고리를 먼저 끊는 것도 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남 M시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연구가 아니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과 심리적 특성 간의 인과 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즉,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달라지는지, 그 반대로 심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메시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두 변인이 순환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원인에 의해 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사소통 유형과 심리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한 실험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이런 의문점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의사소통 유형 분류 척도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권상희 (2004). 인터넷미디어 뉴스형식(news form) 연구 :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사 구성 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4호 (2004, 겨울), 168-194.
- 길애진 (1999). 한국 청소년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동 (2005). 이동전화 이용형태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제48권 2호(2004. 4), 429-456.
- 김연희, 김혜민, 김효경, 박민정, 정결, 조원석(2005).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이모티콘이 미치는 영향력. 심리학 연구, 25, 47-53.
- 김유정 (2002).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 분석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6-3, 104-134.
- 김현주 (2000). 전화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4-2호(2000. 봄), 65-95.
- 나은영 (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89~228
- 나은영, 송종현, 이지영 (2005). 어린이 매체중독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5-2, 22-26.
- 명동선 (2003). 대인관계 및 충동성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과다사용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 영역별 우울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기 (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2003년 4월), 250-261.
- 박종민 (2003). 휴대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의 미디어 속성 차이와 이용 동기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221-249.
- 박진영 (2008).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범 (2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윤언 (2003). 청소년의 의사소통 양상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 (2002).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한 (2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과 동기. 방송문화연구, 제13집(2001. 12), 83-109.
- 설호동 (2006). 의사소통 훈련이 여중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동규, 조윤경 (2002). 이동전화 이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른 이용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6-6호(2002. 겨울), 153-190.
- 송인덕 (1999). 온라인 중독증 개념의 타당성 검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지윤 (2002).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확장으로써 문자메시지 사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03). 이동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 : 음성통화서비스와 문자서비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지, 47권 5호(2003년10월), 87-114.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15-3호, 261-293.
- 이종숙 (2001). 치고 때리기: 문자서비스의 촉각성 그리고 소통의 쾌락 : N세대의 문자서비스 소비와 문화 읽기. 한국언론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장정인 (2000). 현대인의 삶 : 휴대폰 사용에 나타난 인간과 기술. 전통과 현대, 제13권, 163-181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 자기 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보래 (2003). 대인 매체로서의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 :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목 (2002). 중고교생의 휴대전화 사용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제28권, 4호, 398-417.
-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유지 (2004). 문자 메시지 매체의 기대 가치 (Expectancy Value) 연구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Houston: Gulf Publishing Co.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ampbell, A., Converse, P.E., Rodgers, W.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Follet, M.P. (1940), Dynamic Administration, H.C. Metcalf & L. Urwick(eds.), New York : Harper and Row.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Gordon, T.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Grinter, R. & Eldridge, M. (2001). y do tngrs luv 2 txt msg?, Proceedings of ECSCW, Bonn, Germany.
- Ha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 (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7-583.
- Leung, L., & Wei, R.(2000). More than just talk on the move: Uses and gratifications of cellular phone. Journal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08-320.
- Marks, I. (1990). Non-chemical(behavioral) addiction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1389-1394.
- Rahim, M. A. (1992).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 Rahim, M. A. & Bonoma, T. V. (1979).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Model for Diagnosis and Intervention. Psychological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 Reports, 44: 1323-1344.
- Rogers, E. M. (1986).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3rd 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track, S., & Coyne, J. C. (1983). Social confirmation of dysphoria: Shared and private reactions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98-806.
- Suler, J. (1996). Life at the palace: A cyberpsychology case study. {October 5, 2001}.
-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Cell-phone Texting Communication Style

Tae-ik Kim    Won-joong Kim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cell-phone texting communication styl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30 students from five middle schools.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in person. They were asked to write cell-phone text messages on their phones and answer psychological checklis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who had oppressive or submissive communication style were more addicted to mobile phones than those whose communication style was persuasive.

Secon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style of text messages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s, the communication style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to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key words: communication style, cell-phone addiction, self-esteem,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